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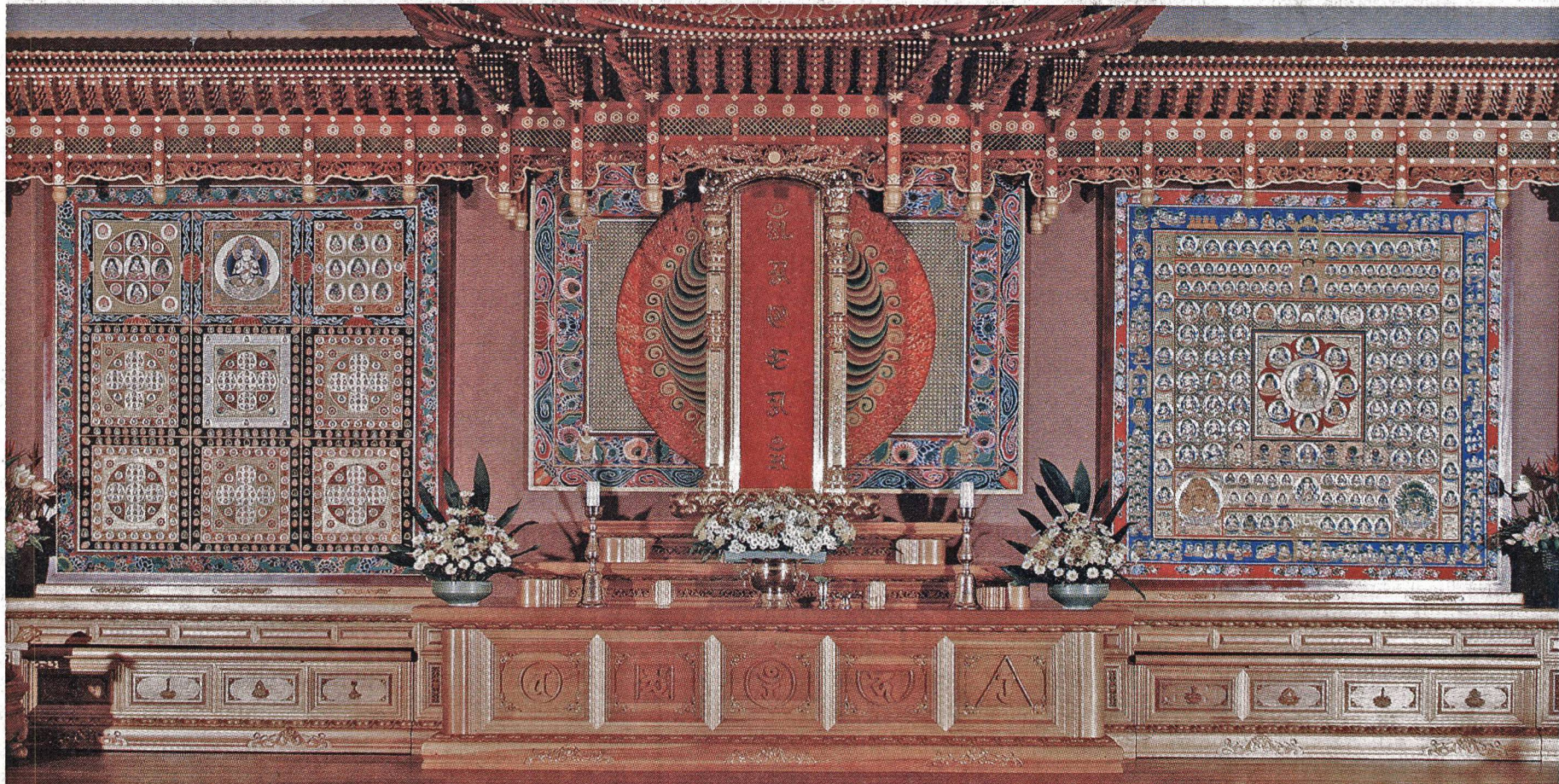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2년 제98호



## 謹賀新年

총지종 불단

중앙에 옴마니반메홀 본존. 오른쪽 태장계 만다라는 중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며 생명 성장과 탄생을 의미한다. 왼쪽 금강계 만다라는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다.

## 창교절 기념 법회 봉행 서울 경인 교구 합창제도 열려



불교총지종은 구랍 12월 24일 전국 각 사원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기념유시

문에서 "원정 대성사께서는 조선조 역 불정채 속에서 맥이 끊어진 밀교를 이 땅에 다시 중흥시키고자 밀교 비법과 경계, 다리니와 수법 등을 발굴하면서

해방 후 한국불교계에 밀교라는 새로운 장을 여셨다"며 "창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중정예하는 이와함께 "창교절을 맞이하여 스승님과 교도들이 다 함께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을 되새기고,

창종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용맹정진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기념법회에선 오전 10시 대중불사 법요와 동참불사가 진행됐으며, 어린이 자성학교 영화상영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창교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도 개최됐다. 이날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은 찬불가와 가곡 등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여 교도와 가족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교도가족들의 국악과 가곡 장기자랑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구었다.

### 종조법설

### 마음 고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관음보살(本心眞言) <옴마니반메홀>을 오나가나 항상 외우고 하루 열 번 이상 자성참회 하면 탐.진.치 삼독은 물러가고 본심이 일어나게 된다.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가. 내 마음을 담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한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사견(邪見)에 집착하여 인과(因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효 강

불교총지종 종령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 가득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지난 과거의 원망심과 수원은 모두 묻어두고 새로운 햇살과 함께 희망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밝혀진 불빛이 모두를 비추고, 모두를 일만하게 성취할 때 대자대비의 원력과 일체를 다 완성하는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나와 일체중생에게 빛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중생제도의 본원(本願)을 세워 가족제도, 중생제도에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중생제도의 본원이 없는 사람

### 신년법어

불자들이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은 크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에 중생을 깨우치고자 45년 동안 설법하셨고, 역대 조사님들도 중생제도를 위해 끝없는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크나큰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 중생과 나는 다른 몸이 아닙니다. "자리아타(自利利他), 자각각타(自覺覺他)"라, 자기의 깨달음은 곧 남을 깨닫게 하는 길이고, 남을 깨우치는 삶은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불보살님들은 중생제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중생과 하나가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면 지혜는 더욱 밝아지고 신통력과 방편의 힘은 더 커집니다.

아무췌록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중생제도의 본원(本願)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원 송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명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진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는 삶이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 하는 벽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깨침입니다. 그 벽이 깨짐으로, 분리 대립되

### 신년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던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비로소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인 세계를 사는 삶이 다름 아닌 자비의 삶인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다 하는 생각이 없는 공(空)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인 샘으로부터 샘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날 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상을 남기지 않는 청정한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체대비의 실천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우리의 세계를 정토로 가꾸는 길입니다.

깨침과 자비, 지혜와 자비는 마치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더불어 있고 하나인 부처님 진리의 실상에 눈뜨는 깨침과 지혜가 있으면 동체대비의 삶 또한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진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뜨고 일체 모든 생명을 위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여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도 여러분 가정에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승단은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으로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종령 효강

총리원장 원송

중앙중의회의장 우승

법장원장 법공

사감원장 지성

교육원장 화령

서울경인 교구장 정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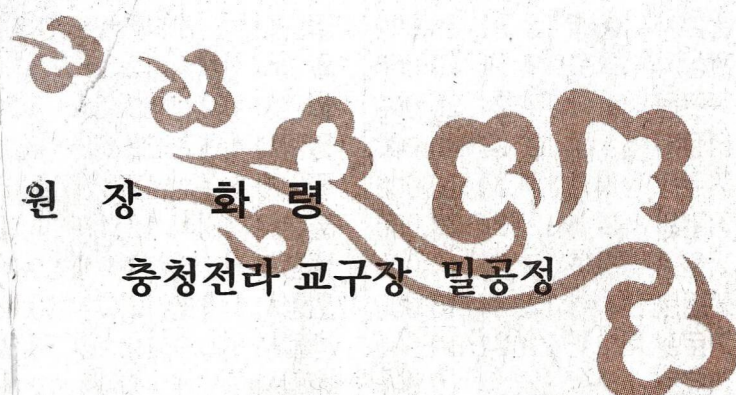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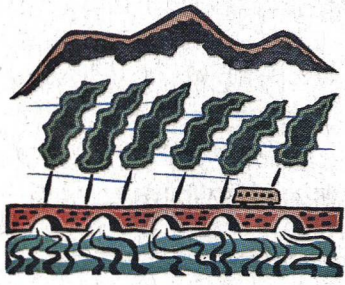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 www.chongji.or.kr





풍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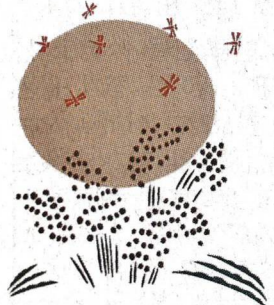
가지고 싶다 해서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거나 갖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능력에 상관없이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갖고 싶어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서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도 언젠가는 내뱉진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 묘원(한국 위빠사나 선원장)

당신의 살구기름



하지만, 그만두고 돌아서기에는 아쉬운 구석이 있다. 여우는 먹지 말고 밤새나 말고 가져며 슬며시 마음을 돌린다.

여우는 살구기름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살구기름에 독을 넣어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둔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우는 살구기름이 놓인 길목에 다다른 빨리 지나친다.

“에이 입만 대보고 가지 뭐, 그러다고 죽어야 하겠어?” 그렇게 자신과 타협을 하고 혀를 살짝 짤 뿐인데 살구 기름은 목을 타고 저절로 넘어가 버린다. 허겁지겁 살구기름을 먹던 여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기름은 이미 반으로 줄어있다. 자포자기 심정이 된 여우는 남은 기름마저 먹어치운 뒤 살구기름이 놓인 길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만다. 당신의 살구기름은 무엇입니까? - 이명선(수필가)

못된 성질



한 청년이 고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특하면 성질을 잘 부립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그래? 어떤 성질인지 알아야 처방이 나오니, 우선 한 번 보여다오.” “스님, 그 성질이 언제 나타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못된 성질은 자네 것이 아니네. 언제라도 보여 줄 수 있어야 자네 것이지. 자네가 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것이 분명해. 지금은 그 성질이 자네한테서 멀리 떠난 모양이니 다시는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잘 단속하게.” - 김원각 / 시인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전수경편 제23화~ 대성사님 너무 어두워요. 번뇌 망상 무명 세척진로원제해 (洗滌塵勞願濟海!)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소멸하리라!

우와앗! 저... 정말 어둠이 다 사라졌어요. 하하하!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하면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잘 닦으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어둠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열심히 닦아야지. 나는 열심히 닦아 깨달음을 얻어 당첨될 거야. 나는 당첨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 계승은 초증보리방편문 (超證普濟方便門) 그 뜻은 깨달음의 방편문을 한꺼번에 얻게된다 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잘 독송하고 실천한다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열심히 닦아 깨달음을 얻어 당첨될 거야. 이이고~ 대성사님 거를 버리지 마세요. 멀고 갈 거야!

이달의 명상

아침 해의 금빛 광명 담백 받으며... 그것은 분명 아침의 상징이 아닌가. 그리고 온 누리에 상서를 가져오는 환희스러운 서풍이 아닌가. 고인은 이를 가리켜 금담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진정 금담이고 싶다. 반야로 울어대는 금담이고 싶다. 어둠을 깨치고 불안을 해치고 광명과 환희를 불러오는 금담이고 싶다. 밝음이며, 오라. 정기와 환희와 변영이며 오라.



아침의 상징

우리의 금담은 한 해 두 해 세 해 끝없이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중에서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구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와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 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1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2 번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3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4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5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6 머리가 무겁거나 뺨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7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 등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8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엄치통 등)

세계속의 불교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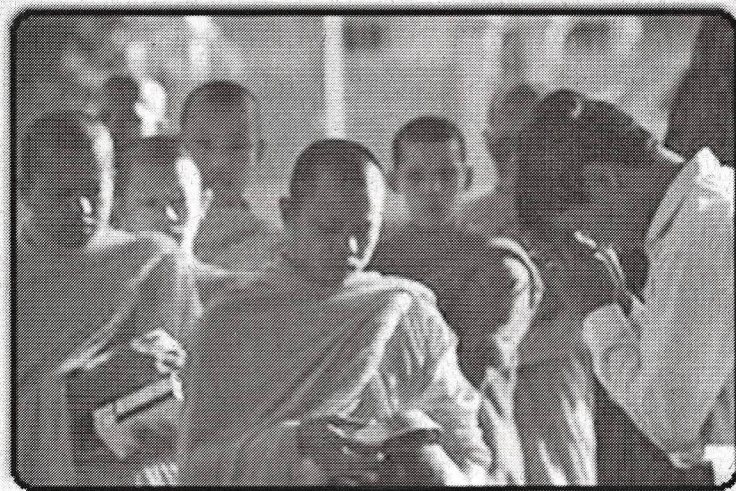
The Daily Life of a Thai Monk and Buddhist Calender

(태국승려들의 하루생활과 불교행사)

태국승가는 약 200,000명의 승려들과 85,000명의 수행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최근에 300,000명의 승려, 100,000명의 수행자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살이 될 때까지 승려가 될 수 없다.

단 하루일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간동안 승려가 될 수 있다. 자신이 평생동안 승려생활을 선택할 지라도 3개월 이상만 생활하면 언제든지 승가생활을 떠날 수 있다. 태국에는 29,000개의 사원이 있지만 모든 사원에서 승려들의 하루생활은 거의 비슷하다.

승려들은 새벽4시에 일어나서 한시간 동안 참선하고 한시간 동안 성가를 부른다. 오전6시 사람들이 승려들에게 공양을 제공할때까지 맨발로 탁발오르 한다. 오전8시 승려들은 사원으로 돌아와서 아침 공양을 한 후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올린다. 정오에는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오후1시 승려들은 불교수업을 받기 위해 사원밖에 있는 불교학교에 간다. 오후6시 두시간 참선과 법회를 올린다. 오후8시 사원으로 돌아와 개인업무를 본다. 승려들은 사원과 사원주변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업무도 행한다. 수 년동안 승가생활과 수행활동, 계행과 수행을 충실히 행한 승려는 승가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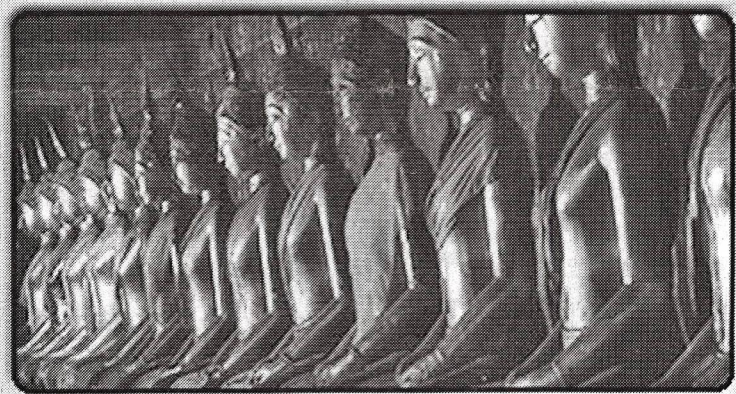
Magha Puja : 음력3월15일, 1,25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날, 이날은 부처님 오신날과 비슷한 행사가 열린다.

Asalha Puja : 음력8월 15일, 부처님이 깨달은 후 초전설법하는 날, 이날은 중요한 설법을 듣고 법에는 촛불행렬이 열린다.

Khao Phansa : 음력8월 16일, 3개월 불공을 입제한 날, 모든 승려와 수행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외출할 수 없다. 이 기간동안 승려들은 열심히 용맹정진한다. 신도들은 자녀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사원에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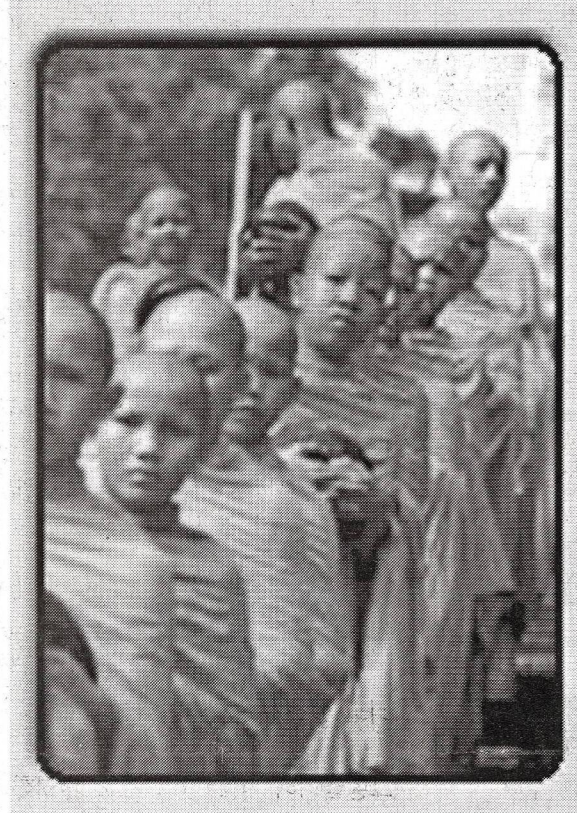
Ok Phansa : 음력11월 15일, 3개월 불공을 회향한 날, 신도의 자녀들도 불공을 마치고 귀가한다.

Tod Kratin : 음력12월 15일부터 30일간 : 이 기간동안 신도들은 불교의식에 참석하고, 사원에 필요한 물품이나 옷 등을 전달한다. 이 전달의식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수 천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여 스님들에게 전달한다.



태국의 불교행사는 거대하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신도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좋은 옷을 입고 사원을 방문하며, 집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금과 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승려들에게 전달한다. 신도들은 사원에서 설법을 듣거나 참선을 하는 등 하루종일 생활하며, 5~8개의 계율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약한다. (http://www.buddhanet.net/wat\_m5.htm)

모든 승려는 227개의 엄격한 계와 행동규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성(性)적인 면에서는 가장 엄격하다. 승려로 수계를 수지할 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서약을 한다. 비록 그가 과거에 결혼을 했을 지라도 승려들은 승려들을 만질 수 없으며, 같은 방에서



승려와 함께 머무를 수 없다. 만약 여자가 승려에게 어떤 물건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천조각과 같은 매개물을 통해 제공한다. 그래서 승려들은 항상 천조각을 가지고 다닌다. 승려가 천조각을 바다이나 탁자위에 펼쳐 놓고 끝지락을 잡고 있으면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승려는 천조각을 끌어당겨 물건을 가진다. 태국승려들은 어두운 갈색에서 밝은 황혼색 등 다양한 형태의 승복을 입을 수 있어 승복에 대한 어떤 규칙은 없다. 그러나 튜통, 산속, 데메이튜 승려들은 어두운 승복을 좋아한다.

Vesakha Puja : 음력6월 15일(국제적으로 5월경) 부처님 오신날, 이날은 불교행사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다. 3일 동안 대중설법, 다채로운 행사, 아난 촛불행렬등의 행사가 열린다.

총지동의보감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법



김장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부부싸움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밝히고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이를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문제해결은 커녕 감정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잘 들어야 한다. 좋은 대화법이란 "나는 ...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느낌-생각-욕구와 소망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맨날 늦게 오는 거야?" 라는 말보다는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편이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상대방과 가까워지게 하는 좋은 표현이다.

말하는 방법만큼이나 듣는 방법도 중요하다.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은 잘 듣는 것이다.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은 없을 거다"는 다소 공격적인 말을 할 때 "당신은 안 그런 줄 알아"라며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자세다. 상대방의 말에 화가 치밀더라도 한번 참고 상대방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라. 뜻밖에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부문제 전문가들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여자의 삼한 잔소리, 그리고 남자의 무시하는 태도를 꼽는다.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시작에는 여자의 비난하는 잔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여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남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잔소리를 들으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근육이 강하게 긴장되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남자는 이러한 반응을 막는 예방책으로 차라리 여자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멀리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잔소리를 부드럽게 할수록, 혹은 부탁하는 것처럼 할수록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 남자는 평생 시부터 여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좋은 글 연재해 주신 김장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 부터는 여성생활의원 조선화 원장님이 기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죽비소리

참회의 공덕

앞의 마음으로 악을 지은 것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고, 뒤의 마음이 착함을 일으키는 것은 햇살이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다. -미증유경 未曾有經-

저지른 악업을 마음 돌이켜 드러내어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거듭 참회하면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선악보응경 分別善惡報應經-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벽룡사

주교 : 정사원 당  
전수 묘심해  
☎ (02)889-0211

시법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밀인사

주교 : 정사법 등  
전수 인덕심  
☎ (02)762-1412

정심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관성사

주교 :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법천사

주교 :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실지사

주교 : 정사록 경  
전수 범수연  
☎ (02)983-1492

지인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지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법 일  
전수 자행정  
☎ (02)552-108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 · 경인교구 신정회

서울 · 경인교구 일동



우승 정사  
중앙 총의회 의장

무자년 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

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님들 가정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올 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등등 실로 많은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새해의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다짐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앞서야 합니다.

무시로 남에게 수원과 원망심을 짓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남을 차

별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남에게 나쁜 업과 허물을 지었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들의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은혜로움과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심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오래 오래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미움과 원망심은 나의 가슴속

무아를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원망심과 미움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릅니다. 어쩔 때는 미움과 원망심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를

가 원망심을 갖는 것은 "나"라는 아상과 집착, 아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라는 아상이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아상을 벗어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면 서로간의 분쟁과 다툼은 없어지게 되고, 화합과 상생의 살기좋은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새해에는 무상과 무아를 깨쳐 "나"와 "너"의 아상과 아집,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관용, 용서와 배려로 해탈의 안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무상과 무아를 깨쳐 분별없는 삶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회와 용서는 우리의 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

깊이 파고들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며 스스로의 곁에 얽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작용을 통찰하시고, 무상과

이 지나면 그러한 미움과 원망심은 얼음물이 녹듯이 조금 조금씩 사라지지만 서로간의 수원을 풀기전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업장속에 저장되어 나쁜 업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 집착에서 벗어나면 참 자유

어느 해의 끝이든 지나온 날들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여겨집니다. 정해년을 뒤로 하고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급년 한 해 승단스승님과 교도님들의 가정에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 되시길 발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용히 관조해 보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

닫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 아집으로 살아 간다면 업장만 무거워 질 뿐 성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심부름꾼이 되어 자유와 편안을 잃고 있습니다. 참살없는 감옥을 자기가 지어 놓고 그 속에서 언제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 속에 사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감옥은 스스로 허물어



지공 정사  
대구·경북 교구장

야 하며 이기심과 아집, 독선과 편견을 버릴 때 참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지 되돌아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루 하루가 후회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이 끝이 없는데 나쁜 버릇은 날마다 늘어 가고 내일이 끝이 없는데 착한 일 하는 날은 많지 못하여 급년 급년 하면서 번뇌는 한량 없이 내년이 다하지 않았는데 깨달음에 이르러 지 못하며 오늘 내일 하면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평생을 다음으로 미루면서 살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을 고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개선이 없으면 삶에 탄력을 잃고 침체되기 쉽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선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봄이면 씨앗



정법계 전수  
서울·경인 교구장

### 지혜 밝혀 법문 깨쳐 고해 중생 해탈

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 놓듯이 내 마음밭도 갈아야 합니다. 그냥 놓아 두면 잡초만 무성해 질 뿐입니다. 정진속에는 진실이 쌓이고 쌓이면 해탈의 길이 되지만 무명속에서는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암흑의 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몸을 유지하기위해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 정진이라는 밥을 먹어야 합

니다. 바다의 조개는 달이 비치면 언제나 그 달빛을 받아 먹으면서 빛이 사라질 때까지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뱀에게도 허공에 달이 뜨면 허엿없이 달을 우러러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달빛을 바라보는 정진력으로 명월주를 키운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정진력의 작용으로 형성되어 자라는 마음의 보배 사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도 내 마음을 갈고 닦아 진흙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각자가 정진수행하여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울해도 또 큰 서원을 세워봅니다. 지혜 밝혀 법문 깨쳐 고해 중생 건지겠다는 원과 함께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되기를 법신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들 가정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멋지고 신명나는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무자년 한해를 맞이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지난 한 해동안 무시로 지은 악업과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가 앞서야 합니다.

참회는 참마의 준말로 내가 지은 죄업과 나쁜 악업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행한 행위를 참회만 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 행한 행위에 참회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모두가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뇌와 망상, 집착, 아집, 어리석음 등 실로 많은 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잡된 것들로 가득차 있으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 십년동안 쌓아온 업장과 습관, 생활양식, 지식과 사상 등을 한 순간에 비우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불교하면 깨달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업장과 집착, 아집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말하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대방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잡된 생각과 집착, 아집이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집과 집착, 번뇌가 가득

하다면 무슨 일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의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용맹정진과 수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을 돌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레바퀴 돌듯 하루하루 일정한 시간표의 일정에 맞춰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인들은 말을 달릴 때 항상 달려온 거리를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만 바라보지 말고 뒤도 보면서 생활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단점을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자년 한 해에는 지난 한 해를 점검하고 나의 생각이 항상 옳고, 바르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생활로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잡된 마음을 비우는 한 해가 되어 행복한 마음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인연된 모든 이들이 소원을 이루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기에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일일시호 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 새해나 묵은 해나 분별하는 것이 지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신



밀공정 전수  
충청·전라 교구장

### 마음을 비우는 한해가 되시길...

법신



대원 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바로 오늘을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로 하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로 하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간 과거를 후회한 다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간다면 복과 지혜가 층만 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신

### 정진수행과 대승보살행 실천

또 벽암록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라. 바로 오늘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하라. 바로 오늘을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로 하라.

아무췌록 정진수행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여래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하십시오.

##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법 황 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모원화  
☎ (062)676-0744

### 혜 정 사

주교: 전 수 혜원정  
정사 서 령  
☎ (043)256-3813

### 만 보 사

주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 백 월 사

주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 홍 국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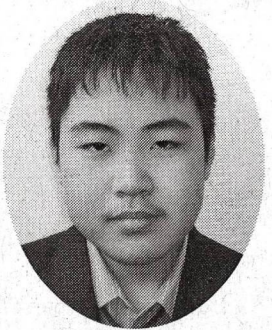
주교: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 충청·전라교구 일동



# 총지문에

## 아버지 로봇



노재현  
동해중 2-3반

아버지 로봇의 모든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잠에서 깨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밤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것이 나쁘지만.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힘들어하는 것이 슬프지만.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주 슬프지만.

이 맘 때가 되면.. 두서없이 마음이 먼저 바뀔 것 같다.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야 할 것만 같은 사람도 많고 하루에도 몇 통씩 울리는 송년 모임 메시지.

벌써 한 번의 행사는 마쳤다. 12월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11월 말에..

금년 한 해는 유독 나 혼자 바쁜 척해야만 했다. 남편덕분에 제주도 가는덕에..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들 덕분에..

시간에 쫓길 때마다 혼자 증명하려 본다.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안한다면 과연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 우리들의 이야기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찻잔을 마주 하고 누구 하나 쫄 난도질을 하고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 있을까? 친구따라 강남에 갔을까? 책장을 넘기다 었어진 채로 몽상을 하고 있을까? 이 모두는 아직 내 몫이 아니었나 보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들은 다잡춰 헛바퀴 같고 아무도 알아 주는 이 없지만

그 날 그 날 주어진 소중한 일들이 비쁘게 공무리를 물고 쫓아다니다가 에 작금의 내가 있고 내일의 내가 있지 않을까 자위하며 겨울 속의 내

모습을 들여다 보며 자문해 본다.

잘 살았지? 잘 살고 있는거지? 잘 살거지? 하면서 말이다.

늘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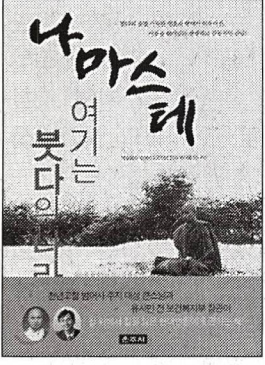
부족함과 아쉬움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고 성취한 그 맛에 취해 혼자 야호! 하고 외마디 질러 본다.

이 삶이 현재의 내 삶이고 내가 살아 있음인 것을..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오늘도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렵니다. - 혜덕화

## 이달의 추천도서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항덕 지음/문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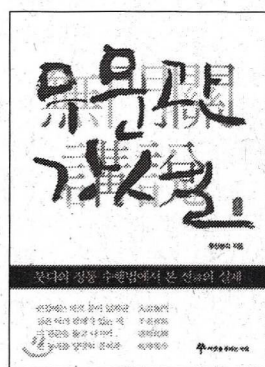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는 고달픈 여정 속에서도 신심을 바탕으로 사대성지를 비롯한 여러 불처지를 따라 부처님의 궤적을 그려내고 있는 항덕 정사님의 인도기행문이다.

"인도를 잠깐 다녀온 사람이 인도에 대해 매일 떠든다" 라는 말을 항덕 스님은 "잠깐 다녀온 사람만이 인도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한다. 2,600년전 부처님의 무모한 출가와 무모한 고행과 깨달음에 대한 무모한 열망을 통해 떠나게 된 인도 여행이기에 여행을 통해 요소소소에 적절한 법문을 곁들여 글귀로 풀어내고 있다.

### 무문관 강설

무산본각 지음/씨앗을 뿌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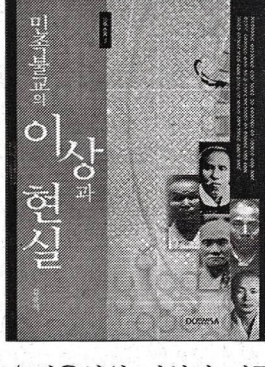
『무문관』은 본격적인 간화선 공안집으로, <벽암록>, <종용록>과 더불어 불교계의 대표적인 수행 텍스트이다. 『무문관 강설』은 『무문관』의 해설서로, 총 48개의 핵심적인 화두의 참뜻과 한



계를 깨뚫어 2천 년 불교의 영적 자산을 그대로 보이며 선 불교의 근본 문제를 조목 조목 짚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무산본각은 오늘날까지 한국불교계가 당연시 해온 화두 수행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뇌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을 뿌리부터 드러내어 보여준다.

### 민족 불교의 이상과 현실

김광식 지음/도피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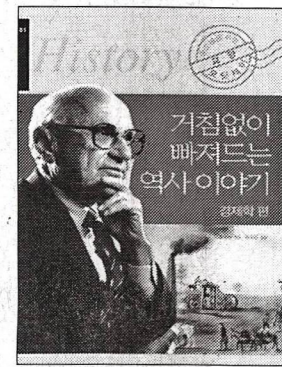


1부: 불교의 민족의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 백용성의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만당과 효당 최범술/ 백용성의 민족불교 / 청담의 민족불교와 영산도/ 강석주의 삶에 나타난 민족불교 // 2부: 민족불교의 고뇌-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중앙학림과 식민지불교의 근대성/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등.

###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

황유뉴 편저/ 시그마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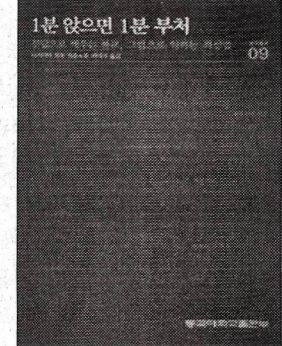


동양에서의 '경제' 어원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경제 제민의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수확공식으로 가득 찬 경제학 책이 아니라 경제학의 역사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담아 경제학사에 등장한 중요 사건과 인물, 이론, 개념, 수단,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경제학자처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1분 읽으면 1분 부처

나시지마와후 / 동국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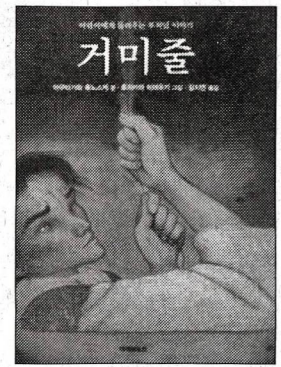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사상과 그림으로 익히는 좌선법을 수록한 책. 진정한 의미의 불교사상을 고찰하는 문답을 담은 <불교문답>과 출가인이나 일반 재가인이 일상생활을 살

아가면서 좌선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안내서 <좌선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 거미줄

이쿠타가와노스 / 미래M&B



<거미줄>의 매력은 이 책은 쓴 작가는 근대 일본 문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이다.

그는 1892년 도쿄에서 태어나 광기와 천재성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35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거미줄>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수작이다. 절제된 문장으로 선과 악,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결코 가벼운 그림책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불교와 선에 대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후지카와 히데유키의 그림은 이 책의 무게감을 적절히 살려 주고 있다. 극락의 신비로움에서 보여지는 푸른 빛과 은은한 향내는 금방이라도 책 밖으로 피어나올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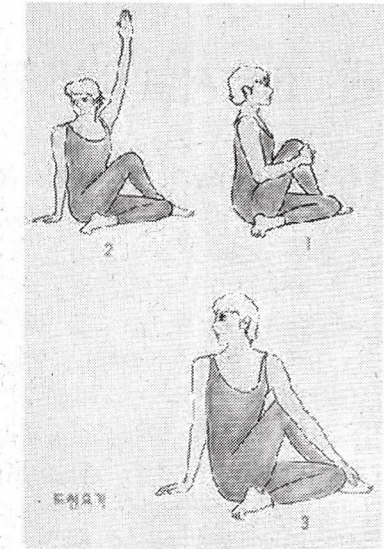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조금은 낯설고 투박한 그림이지만, 이 글이 갖는 진지한 주제를 되새겨 보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저만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모르는 요즘의 세대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를 돕는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다.

## 이달의 생활요가

### 매일하면 좋은 요가 자세 (3)

#### 좌상비틀기체위 Ardha Matsyendrasana



이 체위법은 좌우하복부에 강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좌골신경계의 혈관확장에 따른 성기능 향상과 배뇨배변을 촉진하고 방광염을 예방한다. 특히 간장과 신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고, 좌우로 내장을 비틀기 때문에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위장기능을 활성화한다.

#### <행법>

- 1)왼쪽 다리는 펴고 오른쪽 다리를 무릎자세로 엮는다.
- 2)그림 2번처럼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넘겨 세우고, 왼쪽발꿈치는 엉덩이 안쪽으로 밀착시킨다.
- 3)허리를 곧게 펴고 오른쪽 팔을 오른쪽 엉덩이 뒷쪽 바닥에 지탱하고,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왼쪽 팔을 오른쪽 무릎바깥으로 기대어 오른쪽 발등에 손이 닿도록 뻗어준다.
- 4)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린다. 시선도 오른쪽으로 향한다. 이 자세를 20~30초간 유지하다 다시 교차하여 3~4차례 행한다.

#### <건강효과>

골반교정과 신장,간장기능을 강화하고, 생리불순,갑상선질환,불임,생리통,산후통증에도 효과적이다. 대장염,방광염,변비,전립선질환,위십이지장질환에 좋고, 굳어있는 목뼈,어깨뼈,척추,골반을 교정하고 유연하게하며, 디스크,류머티스,골다공증,동맥통증,요통에도 효과적이다

#### <미용효과>

허리,복부,대퇴부비만 예방  
\*모든 자세의 첫 단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들어가고, 자세완성후 천천히 내쉰다.

#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각사**  
주교: 정사 법 공  
전수 공덕성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1)552-7901

**덕화사**  
주교: 정사 대 원  
전수 정인화  
☎ (051)332-8903

**실보사**  
주교: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관음사**  
주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운천사**  
주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단향사**  
주교: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자석사**  
주교: 전수 혜안정  
☎ (051)752-1892

**법성사**  
☎ (051)468-7164

**화음사**  
주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성화사**  
주교: 정사 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삼밀사**  
주교: 정사 원 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 부산 · 경남교구 일동









# 화보로 보는 2007년 이모저모

## 엄격한 계율정신과 청정수행으로 중풍을 확립하고, 화합과 단결로 종단운영 내실화와 다양한 행사를 원만히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 ▶ 원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2007년 1월 29일 서울 총지사 및 전국사원에서 원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호강 종령 예하는 기념사에서 "종조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여야 하며 이것이 원정 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 ▶ 통리원장 이·취임식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총지사서 통리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15대 통리원장 원송 종사는 취임사에서 "모든 일을 원칙과 소신으로 처리하겠다"며 "지켜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형평과 기준이 살아있는 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임 통리원장 우송 종사는 이임사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승단의 여러 스승과 교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 포항 수인사 헌공불사

포항 수인사(주교 지공)는 11월 20일 서원당에서 호강 종령 예하를 비롯하여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했다. 수인사는 연건평 380평 지상 4층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됐으며, 경북지역의 수행과 문화, 복지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현과 밀법 포교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국제청소년회관과 백담사, 만해마을 등 국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미주, 유럽, 호주 및 아시아 세계 15개국 재가불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재가불자 위상정립과 역할'과 관련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대회는 종단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뜻깊은 불사였다.



### ▶ 만다라 봉안불사 연이어

지난 해 춘계공공회에 만다라 전국사원 봉안불사를 발표한 후 각 사원별로 잇따른 만다라 봉안불사가 봉행됐다. 지난 5월 23일 대구 개천사를 비롯해 포항 수인사, 부산 삼림사, 성남 법천사, 서울 벽룡사 등이 만다라 봉안불사를 봉행했다.



### ▶ 제7회 경로법회를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호 리조트에서 제7회 경로법회를 개최했다.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로법회에 전국 각 교구 65세 이상 어르신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 ▶ 2007한국불교박람회에서 종단 홍보

2007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2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총지종과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각 종단과 조계사, 봉은사, 관문사, 등 주요 사찰 홍보관도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특히 총지종은 종단 전통 불단인 육자진언 본존과 양부 만다라 등을 봉안하고, 매일 오후 진호국가 불공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 각 사원 온라인 신행모임 개설

경주 국광사와 부산 정각사, 서울 총지사 등이 온라인 신행모임을 개설해 미래 포교에 청신호가 되었다. 이들 온라인 모임 등은 앞으로 기존 교도와 일반 잠재적 교도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청소년 수련법회 희망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합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험과 도전! 하나되는 총지인'이라는 주제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산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립 동해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40주년

9월 21일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가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총 졸업생 수는 모두 15,778명이다.



### ▶ 연등축제 참가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연등축제가 5월 20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렸다. 총지종에서도 연희단을 비롯해 연등, 진언 번, 사물놀이패 행렬이 대거 동참해 축제 분위기를 돋구었다.

# 종보통신원 발대식 거행 “화합 단결 구심점 되길”



충지종보에 대한 전국 교도들의 참여를 높이고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종보통신원 발대식이 12월 11일 서울 통리원에서 거행됐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개식사와 유가삼림, 위촉장 수여, 사원별 통신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송 통리원장은 “종보가 발행된 지는 오래 됐지만 아직까지는 태동하는 시기에 있다”며 “전

발대식후 열린 2부행사에선 종보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발의와 다과회가 열렸다. 종보통신원 총무 총지사 최해선 보살은

##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로 하나된 공간”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정부지원금 증액지원

부산 정각사에 위치한 바라밀 공부방(시설장 지경)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된 운영비와 급식비가 증액 지원된다.

바라밀 공부방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매월 1백5십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매월 2백2십만원 지원받게 됐다. 동래구청에서 시행된 시설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영광을 안게 됐다. 또한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근 아동복지교사 1명과 연계형 아동복지교사 2명을 배정받게 됐다.

바라밀 공부방은 입소신청자가 초과되어 입소정원을 제한하

“종보 편집팀활동으로 신심이 증진되고 교도간 결속도 좋아졌다”며 “앞으로 체계가 잡히는 대로 춘추계 워크숍을 비롯해 향후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종보통신원들은 종보 모니터링과 아이디어 개선, 각 지역 소식기사 작성과 제보, 소속교구 교도 신행담과 미담 등의 각종 뉴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 수용하였으며, 증권신문거래소와 아이들과 미래가 주최하는 ‘드림아트 워크숍’ 프로그램에 공모되어 6개월 동안 아동들에게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와 전 사회, 미술캠프를 개최하였으며, 동래구청이 주최하는 연합 행사에 참가하여 정서와 경제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복지를 제공하였다.

한편 바라밀 공부방은 중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인 야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아동 복지 수혜를 확장할 예정이다.

### 세상사는 이야기

어제는 우리 종단의 가장 중요한 생일날인 창교절이었다. 생일 음식인 미역국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셨다. 어린이들을 위한 법회도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어린이 법회를 마치고 우리종단 생일케익 커팅도 하고 선물도 한 아름씩 안겨 주어 어린이들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게 해 주었다. 최고 무늬를 비롯해 우리 사찰 여교무님들의 예쁜 모습들이었다.

법당에서 법회를 마친 우리 어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란 참 좋은 것이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니까. 점심 공양하는 공양처의 분위기도 잔치집 분위기 그대로이다.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대로 들뜬 모습들이다. 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공양처에서 애써 주시는 보살님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항상 좋은 일 뒤에는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들은 이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저녁에 이

를 합창제를 기다리는 동안 보살님들은 각자 자유롭게 담소도 나누고 불공도 하시며 참으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늘 바쁘게 불공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이 가끔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2층 종조전에서는 영화상영도 있었다. 가슴 찡한 가족간의 사랑 이야기였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노후를 생각하게 해 주는 영화였다.

오후에 있을 우리 경인교구 합창단의 음악회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초조하기도 하고 기대 되기도 했다. 한없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불공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오늘 보살님들이 많이 오셔야 할 텐데... 시간이 틀어 있어서 그냥 맥으로 가시면 어떻게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리 속을 어지럽히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인 교구 합창단 보살님들이 한 두 분씩 오시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다 오셨다. 왜 이렇게 반갑던지. 내가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을 지독히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친정 엄마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들을 만난 듯 그렇게 애뜻하고 반갑고 안아 주고 싶다(이렇게 말 하면 싫어하실 단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우리 단원들을 향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 딸들로 채워졌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찬조 출연으로 회장님의 축시낭송과, 총지사 스승님 자부 되시는 분의 우리가라 공연과, 우리사찰 보살님의 독창도 있었다. 모두 우리들을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이끌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부른 우리 보살님들의 노래는 우리들을 환히 하게 해 주었고 우리 종단의 창교절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다. 특히 내 눈에는 보살님들의 노래하는 모습이 마치 천상의 선녀들처럼 아름답고 관세음보살님처럼 우아한 자태였다. 어쩌면 그렇게 모두 예쁠 수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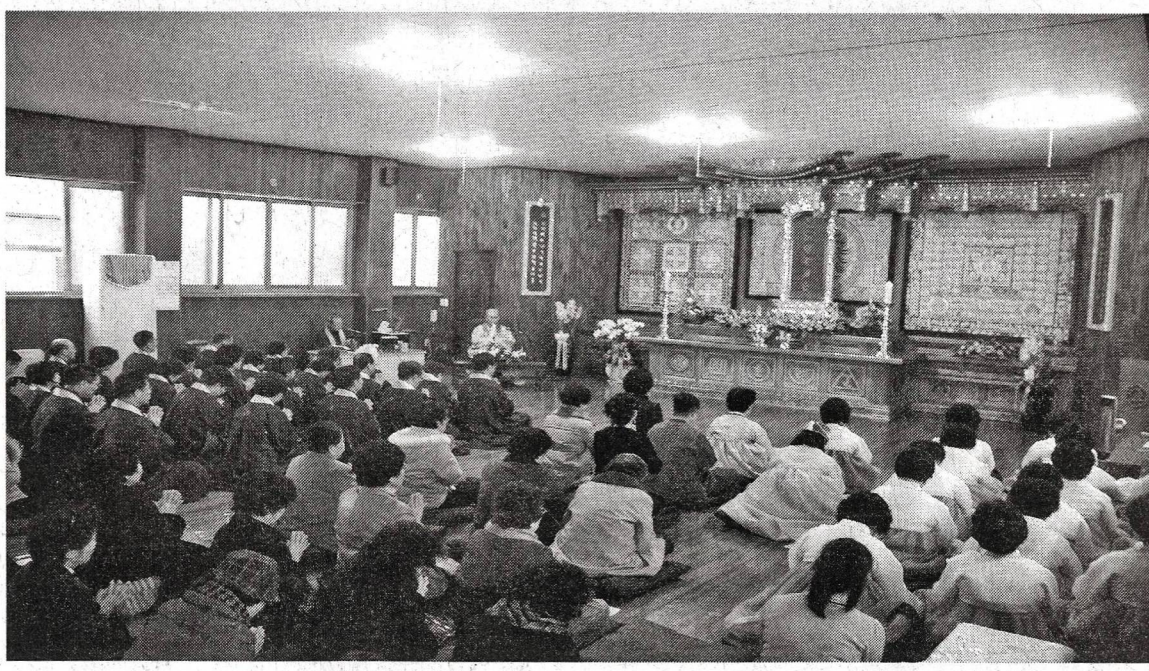
연주가 끝나고 아직 감상에 젖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정각사님께서 전 단장님과 전 지휘자인 나를 앞으로 불렀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앞에 나가 인사도 하고 기념촬영도 같이 했다. 합창단을 향한 내 짝사랑이 나 혼자만의 짝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 합창단이 있어 행복했고 보살님들이 있어 더욱 행복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합창단 보살님들 그 동안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요정

### 창교절 행사를 마치고

# 법천사, 벽룡사 만다라 봉안 불사 회향 “만다라와 함께 깨달음의 길로 정진”



△법천사 본존, 만다라 불사가 12월 13일 봉행됐다.

지난 해 춘계공공회에 만다라 전국사원 봉안불사를 발표한 후 각 사원별로 잇따른 만다라 봉안불사가 봉행되고 있다.

성남 법천사(주교 시경)는 12월 13일 서울 경남 교구를 비롯한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본존과 만다라 봉안불사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천사와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여법하게 불사를 회향한 주교이하 모든 교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을 상징한 양 부 만다라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향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신림동 벽룡사도 12월 27일 전국의 스승과 교도 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만다라 봉안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벽룡사 주교 원당 정사는 “종령님과 통리원장님, 전국의 스승님들과 교도 가족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만다라 세상 삶은 수행의 과정이다

옛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일컬어 뜬구름(浮雲) 같다고 한 것은 허무의 율조미가 아니라 실상을 본 나머지 내뻗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이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를 뿌리고는 다시 수증기로 흩어지듯,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또 그렇게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의 지적이다.

불교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다만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므로 슬퍼하거나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태어남이란 곧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죽음이란 곧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누구도 영생하는 이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길어야 1백년 안쪽에 다 사라지고 말(근원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태어나(生) 자라고(住) 늙어서(異) 죽는(滅) 과정을 놓고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고 늙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공력을 들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도 예외없이 다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는다. 고로 그 자연스런 흐름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불교는 결코 허무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생주이멸의 흐름에 충실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말한다. 매 순간이 시작이요 오늘만이 영원하다는 삶. 시작은 좋고 끝은 나쁘다는 그런 관념을 내던지고 오로지 지금 할 일에 충실하다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은 그대로 수행 과정이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 마디를 지어가며 거기에 스스로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있지만 불멸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성공·실패가 아니라 다만 수행인 것이다.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 제품명: 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델: DWP-331

• 특징: 조리팬, 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격: 35,000

• 제품명: 피자팬      • 모델: MU-1600N

• 특징: 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 부침, 후라이, 전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격: 24,900

• 제품명: 음식건조기      • 모델: LD-528 6단

• 특징: 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슬리드Tray2개

• 가격: 소비자 128,000(판매가 105,000)

• 제품명: 리펠저 키친(벌매)

소팀다리의 대표 브랜드... << 인기상품! >> 콘에어 스팀다리미

CONAIR GS1K Professional FABRIC STEAMER

360도 회전 가능한 옷걸이

삼각형 스팀분사원통

만지모작형 기판리미

다기능링

출시가격: 74,800  
순간기압: 45조  
물탱크용량: 2L  
전속시유시간: 1시간 30분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 “무자년 새해! 충지도량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삼밀수행 도량

## 현대밀교의 선구자-불교충지종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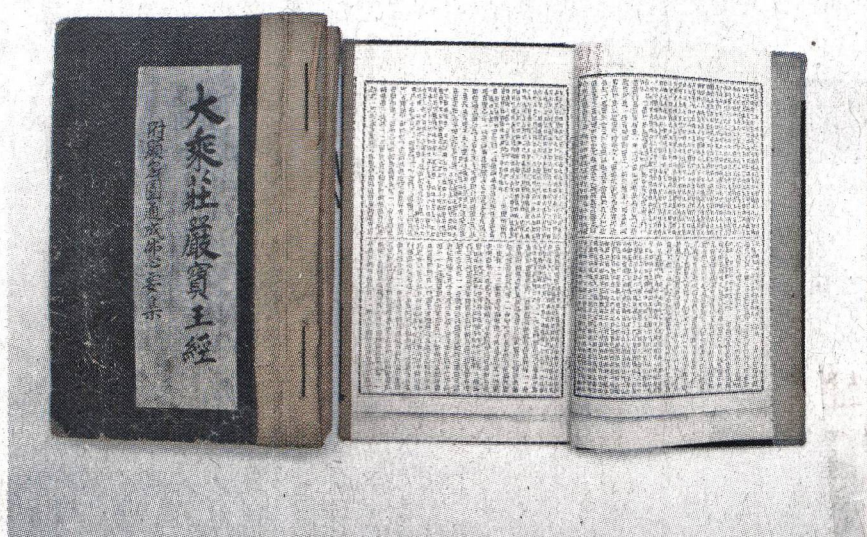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확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충지종보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http://www.Chongji.or.kr)